

종교적 자유와 개성

대 바빌론

AT 존스

소개

개성과 자유의 하나님께서는 신앙과 진리 안에서의 개인성과 자유에 대한 신성한 원칙과 권리를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원칙은 수세기에 걸쳐 그토록 놀랍고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유지하며, 항상 싸우고 타락하고, 존재하지 않게 남겨 두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의해 인식되고 제대로 대표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이 진리, 이 놀라운 진리는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자체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근본적이고 최고의 진리입니다. 이 신성한 진리는 세상과 교회 앞에서 그 신성한 위치를 극복하고 영원히 확보할 것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의 이 근본적이고 신성한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리고 항상 세상에서 참된 기독교 교회가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나타나실 때에 “점이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흠.”

종교는 “우리의 창조주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그분이 이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입니다.

자유는 “타인의 지배나 제한된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상태이다. 윤리학과 철학에서 합리적 행위자가 이유나 동기에 따라 자발적이고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는 타인의 지배나 제한적인 상황으로부터 인간이 면제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의 자유; 창조주에 대한 의무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물의 본질상 모든 관계 중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든 의무 중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일 수 있습니다.

우주에 지성 있는 생물이 단 한 명뿐이었던 때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에 대한 당신의 관계, 그분에 대한 당신의 의무만이 그럴 수 있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관계 중 첫 번째입니다. 그러므로 기록되었듯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영혼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계명은 말이나 글로 주어진 최초의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능한 최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지적인 존재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 원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최초의 지성 있는 피조물이 존재하는 첫 순간에 그 존재에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원리가 수정되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영원히 놓여 있습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모든 관계 중 첫 번째이고 모든 의무 중 첫 번째이지만; 이러한 관계와 의무는 지성 있는 피조물의 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지만, 이 본질적인 의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성 있는 피조물을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무를 인식할 것인지 여부는 자유이며, 이 의무를 수행할 것인지 여부는 귀하가 원하는 대로 자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수를 거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에서, 즉 우리가 창조주를 향해 이행해야 할 의무와 그것을 이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타인의 지배와 제한적인 환경에서 완전히 면제”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사실입니다. “자발적이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는 합리적 존재라는 선물 자체에 내재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지 않은 어떤 봉사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강제, 사랑과 힘, 사랑과 억압은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 선택에서 비롯되지 않은 모든 의무, 의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피조물 중 하나를 창조하실 때에

천사든 사람이든—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거나 예배하는 데 덕이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자유를 선택 하도록 그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성이고 그것에 대한 신성한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인해 이 자유에서 분리되어 상실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길은 자유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업은 이 길을 분명히 하고 인간에게 유일하고 참된 자유인 “영혼의 자유”의 절대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유케 하는 사람은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성경에는 종교적 자유라는 주제에 관해 여섯 가지 구체적인 교훈, 즉 인간의 지배와 세속 권력을 장악한 인간의 연합에 맞서는 개인 영혼의 자유가 분명하고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각 수업은 뚜렷하고 구체적인 원칙의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 교훈을 종합하면 각 원리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다룹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여섯 가지 교훈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연속해서 특별 공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종교의 자유는 다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완벽하게 밝혀진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도 여전히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경에 명시된 대로 원리와 경험에 있어서 완전한 종교적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배우십시오.

제1장

종교적 자유
독재정치와 관련

사물의 본질상 다른 사람을 지배할 법적 자리는 없습니다.

개인의 삶과 사업. 이것은 자신의 형상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각 개인은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 사람에게만 대답하면 돼.

그러나 죄 많고 반역적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서 개인의 영혼 안에 그리고 그 영혼과 함께 그분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야망이 있었고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그 주장을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도구를 동원했습니다. 일반 원칙에 관한 한 역사 자체는 영혼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려는 죄 많고 반역적인 인간의 이 오만한 주장을 성공시키려는 가능한 최대 규모의 일련의 시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남자들. 인류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열심으로 참여하는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아벨 시대부터 지금까지 영속적이고 영웅적인 주장과 미묘한 것에 대항하는 개인의 완전한 자유에 대한 주장에서 제시된 것보다 더 이상 요구하거나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이 고안할 수 있는 허세와 힘과 힘의 강력한 조합. 니르룻에서 느부갓네살까지, 그리고 느부갓네살부터 지금까지 제국의 진로와 힘은 이 한 가지를 향해 구부러지고 발휘되었습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과 그의 세 동료, 바울, 위클리프, 후스, 밀리츠, 마티아스, 콘라드, 제롬, 루터, 로저 윌리엄스 및 기억되지 않는 수많은 이름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한 믿음으로 숭고하게 하나님과 홀로 남아 계셨으며, 인간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홀로 계셨습니다. 개별성과 인간 영혼의 자유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영혼의 영역.

바빌로니아 제국은 당시 세계와 마찬가지로 문명 세계를 포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군주이자 절대 통치자였습니다. “왕이여, 만왕의 왕이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그에게 주셨으니 사람의 아들들이 거하는 곳마다 다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을 다 그 손에 붙이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다 다스리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니엘 2:37,38.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섭리 목적으로 모든 나라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7:1-13. 바벨론의 정부 형태와 체제에서는 왕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었다. 이러한 주권의 절대주의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육신은 물론 영혼의 주권자, 종교 생활 과 인간 의 주권자로 추정됩니다.

그의 권력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민사 행위. 그리고 그는 민족들의 통치자였으므로 종교와 민족들의 종교에 있어서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모두 금으로 높이가 100피트, 너비가 10피트 정도 되는 큰 신상을 만들어 “바빌론 지방의 두라 밭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각 지방의 모든 관리들을 불러 큰 금 신상을 봉헌하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모든 장교가 와서 함께 신상 앞에 섰습니다.

“전령자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 이제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수금과 양금과 비파의 소리를 들을지니 백파이프와 온갖 음악을 불며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 불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리고 악기가 예배를 위한 큰 신호를 울렸을 때, 모든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금 신상에게 경배하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다니엘 3:4-6.

그 모임 중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히브리 청년 세 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벨론 지방의 사무를 감독하는 왕의 신하들의 임명을 받은 자더라. 이들은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에 특별한 관심을 두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일이 있었니.

이것이 관찰되었고 왕 앞에서 비난을 샀다. “주님께서 바벨론 지방의 일을 감독하도록 임명하신 유대인들이 있으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왕이여, 이 사람들은 왕을 무시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다니엘 3:12.

그러자 “분노하고 노한” 왕은 세 젊은이를 자기 앞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왕이 직접 그들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이야?” 그런 다음 왕은 모든 종류의 악기 소리에 엎드려 경배해야 한다는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즉시 타오르는 풀무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침착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기를 원하시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다니엘 3:16-18.

이제 문제는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세계 최대의 권력을 지닌 군주가 직접 세 사람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들은 복종하지 않겠다는 선언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행동이었고, 절대 권력을 지닌 왕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공식적인 분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분노도 일어났다. 그리고 그는 너무 화가 나서 “얼굴빛이 변하여” 그 젊은이들을 향하여 명령하여 풀무불을 평소보다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군대에서 가장 유력한 자들”이 젊은이들을 묶어 불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외투와 겹옷과 모자와 기타 옷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 . 그들은 묶인 채 불타는 용광로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왕은 생애 어느 때보다 더 겁에 질려 “급히 일어나” 고 문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결박된 사람 세 명을 불 속에 던진 것이 아니오?”

그들은 그에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 네 명의 남자가 풀려나 아무런 손상 없이 불 속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 방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습니다.”

그러자 왕은 풀무 입구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장 높으신 하느님의 종들아, 나와서 오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총독과 수령과 총독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보니 이 사람들의 몸이 불에 능하지 못하니라. 그들의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겹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 타는 냄새도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 사 자기를 의뢰한 종들을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넘겨주기를 원하였음이니라” 자기 몸으로 자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며 그에게 절하게 하였느니라.”

상황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를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자신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그들 가운데 있는 세 젊은이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 그러나 세 사람은 바벨론 왕이 개인적으로 직접 명령한 세부 사항까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 속에서 여호와께서는 친히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여 그를 섬기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들이 종교 분야에서 그를 섬기도록 그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시거나 의도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더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세 사람의 태도와 그들의 놀라운 석방을 의심할 여지 없이 인정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왕의 명령이 잘못되었음을 왕에게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이 왕은 자신이 요구할 권리가 없는 승배를 요구했다는 것; 여호와께서 그를 이방의 왕으로 세우셨으나 그 백성의 종교 에서는 왕으로 삼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국가와 백성과 언어의 지도자로 인도하심으로써 단 한 개인의 종교의 지도자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와 백성을 왕의 정치적, 물질적 직무에 있어서 왕의 명에 아래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께서는 왕의 직무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그에게 권력이나 관할권을 부여하지 않으셨음을 왕에게 명백히 보여 주셨느니라. 그들의 영혼; 민족과 민족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일에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이 그에게 주어 섬기게 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사람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나 그러나 왕은 각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아무 관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가 있는 경우, 양심과 예배에 있어서 "왕의 말씀"은 변경되어야 하며, 왕의 법령은 무효입니다. 바로 이 일에 있어서 세상의 왕은 아무 것도 아닌 존재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그 날에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의 영원한 교훈이 되었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제 2 장

종교적 자유
법의 우위를 고려하여

바벨론의 세계 강국과 제국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데, 그것은 메디아-페르시아의 세력과 제국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또 다른 원칙이 있으며, 여기에서 세상에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이 주어집니다.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정부의 원칙이 바벨론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벨론은 절대 군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독재 정치, 즉 일인 통치, 단일 개인 절대주의였습니다. 왕의 말이 곧 율법이고, 왕의 뜻과 말이 바뀌듯이 율법도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법의 원천이었고, 그의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율법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메디아-페르시아 정부 역시 절대군주제였습니다. 거기에도 왕의 말씀이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왕의 말이 법으로 공포되면, 그 법은 왕 자신이 변경하거나 반대할 수 없습니다. 왕 자신도 한때 법이 되었던 자신의 말이나 법령에 의해 자신에게 갇혔습니다. 그러므로 메디아-페르시아 정부는 법의 정부였으며 그 원칙은 법의 우월성이었습니다.

이 제국에는 경영의 우두머리로서 세 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중 다니엘이 첫 번째였습니다. 다니엘의 지식, 성실, 기술 및 행정상의 일반적인 가치 때문에 왕은 “그를 세워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할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른 두 대통령과 왕자들의 질투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과 같이 공모했습니다.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제국의 국정에 관한 다니엘의 행동과 관련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길고도 부지런한 조사와 가장 상세한 조사 끝에 그들은 노력을 중단하고 “어떤 비난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 실수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를 고소하지 아니하면 이 다니엘을 고발할 틈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이 먼저 원하는 기회를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을 조성하기 전까지는 그들의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도 그를 반대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국의 일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기회나 결점을 찾으려는 그의 오랜 노력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헌신과 충성을 그들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조사를 통해 그들은 경험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라는 좁은 노선에서 조금도 기울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문제였으며 어떤 식으로든 어떤 사람의 간섭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당신의 행동과

주정부는 의식적으로 편향된 자체 조사를 통해 그것이 실제로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라도 그를 고소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한 상황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흔들리지 않는 헌신이 그들이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국의 모든 관리들을 끌어들이는 계락을 세워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오 왕 다리오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대신과 방백과 모사와 총독이 동의하여 왕이 금령을 정하여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금하게 하되 왕이여, 사자 굴에 던져 지지 마옵소서. 그러므로 왕이여 이제 금령을 인가하고 그 증서에 서명하여 변경되지 않게 하옵소서.

메대와 바사의 법을 좇았으니 취소될 수 없느니라 .” 다니엘 6:6-8.

왕은 수많은 제국 최고 관리들의 이 기분 좋은 제안에 현혹되어 그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조사가 만들어진 것과 왕이 그 법에 인을 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제 제국의 법, 우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집에 돌아가서, 정규 기도 시간이 다가오자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제국의 법을 공개적으로 무시하는 것을 보고 서둘러 왕에게 달려가서 큰 존경심을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금지령에 서명하지 않았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말씀은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법대로 취소할 수 없느니라. 그러자 계락을 쓴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왕이여 유다 포로 중 하나인 이 다니엘은 왕을 무시하고 왕이 서명하신 금령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러자 왕은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놓아 주기로 마음에 정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사람을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내내 그리고 모든 경우에 왕은 교활한 사람들의 호소에 직면했습니다. “율법; 법”. “왕이여, 왕이 정하신 금령이나 금령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 메대와 바사의 규례인 줄 아시옵소서 .”

법

의 우월성은 왕 자신을 제한했습니다. 탈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몹시 꺼리는 가운데, “그는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온.”

왕은 금식하며 잠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른 아침에 그는 서둘러 사자굴로 가서 “슬픈 음성으로 다니엘을 불러서 그 소리를 들으리라”고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어찌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다니엘이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그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앞에 내가 무죄하였음이라. 왕이여, 나도 왕께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죄하며, 왕에게나 국가에나 사회에나 국가에 대하여 “어떤 범죄” 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완전하고 영원히 입증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법이나 정부의 원칙.

신성한 진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지상의 어떤 정부도 종교 문제 , 즉 “우리가 창조주께 지고 있는 의무와

우리 자신을 돌보자.” 이 경우, 어떤 정부도 종교를 존중하는 조항을 법에 포함시켜 “법”의 우월성과 완전성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는 추가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종교적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와 “메대와 바사의 율법의 우월성”의 경우, 이 모든 호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종교에 관한 어떤 것도 율법에서 정당하게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에서 개성을 완성할 권리는 그 성격이 신적이므로 절대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종교적 관습이나 금지 사항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 신성한 권리의 자유로운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종교가 법의 일부가 되더라도 권리의 충만함과 그 행사의 완전한 자유는 항상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종교, 종교적 준수 또는 금지가 법으로 정해지면 비록 법이 미디어와 페르시아의 법처럼 최고이고 융통성이 없지만, 종교에 있어서 개인의 신성한 권리와 완전한 자유는 종교를 구현하는 법까지 확장됩니다. 그러한 법은 전혀 법이 아닙니다. “법의 우월성과 완전성”이라는 미명 하에 종교적 관습이나 금지를 부과하는 속임수는 종교의 신적 권리와 완전한 자유, 개성을 제거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제한하는 대신, 실제로 모든 청구 근거를 제거하는 정도로만 반응합니다. “법의 우월성과 완전성”에 관해서는 사실상 해당 사건의 특정 법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민사 분야에서는 확실히 최고이지만 종교 분야에서는 전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에 예시된 독재 정부와 관련하여 종교에 개인의 신권이 존재한다면 왕의 말씀은 바뀌어야 합니다.

미디어와 페르시아의 정부에서 예시된 법의 우월성과 경직성과 관련하여 종교에 개인의 신권이 존재하는 경우, 종교에 영향을 주거나 고려하는 모든 법은 전혀 법이 아닙니다.

종교의 분야는 하나님의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는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뜻이 유일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개인은 하나님과 함께 홀로 서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집니다.

3 장

무엇이든 종교적 자유
국가와 교회의 연합에 관한 문제

매우 놀라운 사실과 의심할 여지 없는 경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과 세 히브리 청년의 경우, 어떤 군주도 올바른 군주와는 관련이 없다는 신성한 진리와 원칙이 영원히 명백해졌습니다. 종교의 개성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면 왕의 말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에 상응하는 사실과 경험을 통해 다니엘을 대적한 메대-페르시아 정부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백성의 종교에는 법도 없고 사람의 어떤 정부도 없다는 원칙이 영원히 분명해졌습니다.

법을 통해서도 당연히 그것과 아무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즉, 종교에서 개성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앞에서는 종교와 관련된 어떤 법도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법을 절대적으로 무시하고 무시하는 모든 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무죄” 하며 정부, 법률 또는 사회 앞에서도 “범죄”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예와 그것이 설명하는 원리는 지상 정부의 모든 단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종교는 그 의식, 제도 및 관례와 함께 어떤 단계나 형태의 지상 정부의 강제로부터 완전히 면제되며, 따라서 그래야 한다는 위대하고 중요한 진리가 분명해집니다. 그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만 개인에게 속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종교 영역에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입니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 안에 있는 그의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광야의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그곳의 교회였습니다.

목이 뺏겼고 마음이 완고하며 정신이 어두워서 그들은 슬프게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자비로 대대로 “광야와 땅에서 그들의 행위를 관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그 사람들은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거하러 오실 때까지 교회로서 존속해 왔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이 교회는 넓은 왕국과 통치권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약속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의 통치와 권력은 그 교회의 사람들을 가혹하고 잔혹한 현세적 복종 속에 가두었고, 그들은 약속된 구원자의 출현을 갈망했습니다. 이 구원자는 풍성한 약속을 받았고 마침내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위대한 자들은 약속된 왕국과 통치의 영성에서 눈을 가리기 위해 그들의 세속적 야망을 허용했습니다. 로마의 멍에를 풀고,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선민의 교회를 국가에 대한 권력과 지배권의 위치로 높일 정치적, 현세적 해방자를 기다리도록 사람들을 찾고 가르쳤습니다. 당신보다 열방이 오래오래.

예수께서 처음 공개 사역에 나타나셨을 때, 교회의 이 위대한 자들은 그분 주위에 모인 군중을 따라갔고 그분께서 그들의 기대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며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관심과 열광이 “역지로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리고 예수께서 그 영예를 받아들이거나 그러한 계획을 장려하는 대신에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또한 로마의 지배로부터 구원받고 열방을 높이려는 그들의 모든 야심찬 희망이 예수에 관한 한 완전히 헛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때쯤에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의 영향력이 너무 넓고 강해져서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힘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야심찬 계획과 세속적 권력과 통치에 대한 희망이 성취되거나 승인되는 것을 보는 대신, 그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누리던 권력과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는 것을 실망스럽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무명에서 태어난 사람, 평판이 덜한 도시에서 왔고 기껏해야

평범한 교회의 일원! 그들의 자리와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 뭔가를 신속하게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 무렵 그들은 그뿐만 아니라 군중 자신도 이러한 성격의 금지 사항에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탈출구, 즉 그의 지위와 존엄성을 유지하고 그와 국민에 대한 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었습니다. 그들 자신의 견해와 지위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지위와 존엄성을 그 지위뿐만 아니라 교회의 존재 자체, 심지어는 국가 자체와 동일시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를 이대로 놔두면 모두가 그를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자리뿐만 아니라 그 나라 자체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들은 그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1:47,53.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민간 당국으로부터 통제권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권위가 로마인이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미워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인식할 수 없었던 로마의 권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들의 위치와 존엄성과 권력이 사라지는 끔찍한 대안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잊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서 있었습니다. 헤롯당은 헤롯의 지지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들은 유대 왕으로서의 헤롯의 지위를 변호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로마로부터 직접 지명을 받아야만 왕이 되었으며, 로마의 권력에 의해 계속 왕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헤롯의 지지자이자 변호자가 된다는 것은 로마의 지지자이자 변호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회에서 유일하게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극단파를 대표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하느님께 대한 가장 진실한 충성심과 선택된 백성의 고대 존엄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장 극단주의적인 반체제 인사였으며 로마와 로마에서 유래했거나 로마와 관련된 모든 것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의인이요 최고의 위엄을 지닌 자들로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큰 적개심을 품고 공의회를 주도하여 그를 멸망시키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속 권력, 즉 로마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에 대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로마에 대한 증오를 간과하고 예수에 대하여 로마의 힘 자체를 이용할 것이며, 그들의 공언상 그들은 가장 극단적인 반대자이자 반대자였습니다.

그들이 세속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로마까지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헤로데 당원들과 공통 주제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예수에 대한 반대가 덜한 헤롯 당원들은 동맹을 맺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동맹을 통해 정당은 바리새인들과 합의하게 되고, 그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과 권력은 교회 지도자들의 지휘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군사력의 사용을 보장할 것이며, 그들은 예수에 대한 그들의 선언된 움직임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동맹이 성립되고 음모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러가자 곧 헤로당과 함께 예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니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3:6. “이에 바리새인들은 떠나가 무슨 말로 예수를 놀라게 할까 의논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제자들을 예수께 보냈는데, 그들은 예수를 총독의 관할권과 권위에 넘기려고 의로운 체하는 사절들을 보냈습니다. 마태복음 22:15,16; 누가복음 20:20. 그리고 그 총독은 로마 빌라도였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겐세마네의 끔찍한 한밤중에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칼을 든 폭도 ”와 함께 그들에게 넘겨져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면서 먼저 그분을 안나스에게 데려갔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냈고, 가야바는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그분을 헤롯에게 보냈고, 헤롯은 “그의 경비병들과 함께” 그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고 조롱했으며, 눈부신 옷을 입은 그분을 제시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그분을 석방하기를 원했을 때, 그들은 로마에 대한 빌라도 자신의 충성보다 더 높은 가이사라와 로마에 대한 충성 이라는 궁극적인 정치적 충성을 표명했습니다. “동방을 해방한다면 당신은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닙니다. 자기를 왕으로 삼는 사람은 누구나 카이사르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빌라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이까?” 오직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버리고 로마와 더욱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다는 표현적인 말을 응답으로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박으라!” “그들은 큰 소리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승리했습니다.”

그리하여 우주 전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심각한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와 교회의 연합, 즉 세속 권력을 통제하고 그 권력을 사용하여 사악한 의지와 목적을 실현함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이 끔찍한 사실만으로도 영속적이고 무한한 저주를 보장하고, 유사한 모든 연결을 영원히 영원한 악명에 빠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러한 기록이 있었다면, 바로 이 국가와 교회의 연합, 즉 세속 권력을 통제하는 교회가 어디에 서나 인간과 국가에 가장 큰 저주임이 입증되어야 했고 결코 입증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항상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세속 권력이 교회에 대한 사탄의 선물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제4장

무엇이든 종교적 자유
교회 자체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군주제 정부도 종교적 의식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이 그렇게 되면 종교의 개성에 대한 권리가 가장 중요하며 군주의 말은 바뀌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법이 최고인 어떤 정부도 왕국의 입법에 종교에 관한 법령, 법령 또는 조항을 추가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행해졌을 때, 종교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는 여전히 최고이며, 하나님 앞에서 무죄합니다.

정부, 법, 사회 앞에서의 죄로부터의 완전한 면제는 그러한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자신의 의지를 실행하거나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통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할 때, 가장 큰 죄악의 연결이 형성됩니다. 그러한 교회에는 사탄의 세력이 소유되어 있으며, 종교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는 여전히 최고이며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습니다.

종교에 있어서 인간의 지배를 추구하는 또 다른 조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자체, 즉 회원과 관련된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든, 놀라운 경험을 통해든, 성경은 이 주제에 관해 제시된 다른 어떤 예와 마찬가지로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 최초의 "광야 교회"였으며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과정이 이미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셨던 당시의 바로 이 이스라엘은 비록 영과 실체가 그들에 대한 신성한 이상에 훨씬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여전히 직계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의 공식 조직도 직계존속 그대로였습니다.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직분은 순서와 계승에 따라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반차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공식 공의회인 산헤드린도 그 사상과 형태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임명하신 칠십 장로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시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전체 조직, 즉 제사장직과 대평의회는 형식상으로 볼 때 사실상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신성한 조직의 직접적인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실로 광야에서 나온 교회였습니다.

주의 사도들과 원래 예수의 제자들도 예외 없이 모두 이 교회의 식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 교회의 예배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오가며 정규 시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2:46; 3:1; 5:12. 백성은 그 일이 이루어짐을 기뻐했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은 교회의 탁월한 사람들이 알지 못했고 인식하지도 못했던 신성한 진리를 배웠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서 그들은 그것을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와 그분을 통한 부활과 구원을 전파했으며 다른 길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교회의 공식 질서와 조직을 "이제 배반자요 살인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이 공식 질서와 조직은 교회의 개별 구성원들이 진리라고 알고 있는 진리를 설교하거나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는 임무와 특권을 맡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의 제사장들과 관리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가 나왔을 때에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고 베드로는 감탄하며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교회의 온 반차와 직분자들 곧 관원들과 칠십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들이 무슨 권위로 전파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은 그 공식적이고 권위 있는 단체 앞에서 교회의 단순한 문맹인 두 사람의 담대함에 “놀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Pedro와 João는 의회에서 해고되었으며 회원들은 "서로 혐의"했습니다.

회의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이 이름을 말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협하자”. 그런 다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주 쉽게 주어진 이 대답에서, 그 집회에서는 이 평범하고 문맹인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의 교인들은 실제로 자신과 같은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상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고위 관리들과 잘 교육받은 사람들 전체가 알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 그리고 그들은 공의회 명령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공의회가 말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분명하게, 의회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한 행동 방침은 각 사람이 스스로 대답할 뿐이며 "모든 질서와 권위를 전복"시키는 개인의 독립성을 나타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임원들과 그런 위엄 있는 기업에 대해 얼마나 반응이 좋았습니까? 그 8월 집회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개별 교회 회원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 교회 조직에 신성하게 임명된 가장 고귀한 직분과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정기 모임에 이르기까지; 그 관리들은 이것을 가정과 교회의 모든 질서와 조직의 파괴로 간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그들이 여전히 심각한 위협을 받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

떠나도록 허락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어울리러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얼마나 많이 말하였는지를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조금도 존경심이나 두려움을 나타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일을 확실히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하며 그들로부터 오는 위협을 살피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독교인의 확고함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믿고 남자와 여자가 주와 연합하는 무리가 더욱 많아지니라.”

교회의 “권위” 에 대한 이러한 공공연한 불복종, “기존 질서와 조직에 대한 대담한 무시”가 계속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은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및 그와 함께한 모든 자 곧 사도 개인의 당이 일어나니 저희가 시기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나 보라,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날이 새자마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니라.”

그 날 아침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산헤드린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원로원을 부르고 그들을 옥에서 내어 보내어” 사도들을 그들 앞에 불러다가 모든 것에 대해 답변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의 “불복종”, “배교”, “조직화된 노동에 대한 반대”입니다. 사자들이 돌아와서 감옥은 단단히 닫혀 있고 보초들은 자기 자리에 있었지만 죄수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성원들이 그 모든 의미에 놀라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교들은 그들을 다시 체포하여 산헤드린 앞으로 끌고 가도록 파견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에게 “우리가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분명히 명령하였거늘 너희가 너희 교훈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느니라”고 물었습니다.

사도들은 이미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느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하다.”

금지된 태도를 고집하는 이러한 대담한 태도에 직면하여 산헤드린 성원들은 “그들을 죽이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 성원들은 가말리엘의 그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단념시켰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다시 소환되어 “채찍질” 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사도들은 공의회 앞에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공의회나 자신들이 행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굴복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공식 교회 조직으로부터 채찍질이나 다른 고난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 것을 다시금 기뻐했습니다. 진실, 사실, 그리고 산헤드린 성원들은 공식 교회 조직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고 그들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매일 성전에서와 집에서” 전혀 전파하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했습니다. 집에” 가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따라서 하나님 아래서 놀라운 경험을 한 분명한 사실을 통해 모든 교회의 신권, 공의회 또는 행정의 공식적 권위, 종교, 신앙 및 가르침에 있어서 개인의 권리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이 경전의 설명을 통해 어떤 교회 모임이나 공의회도 어떤 사람에게나 심지어 교회 회원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거나 전파해야 하는지에 관해 명령하거나 질문할 권한이나 권리가 없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1)

(1) 행위와 관련하여, 회원의 '범죄' 또는 '과실'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정확히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신성한 지시와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목적에 있어서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결코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버림받지 않고 개인을 '승리'하고 '회복'시키는 온유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한 한, 교회에는 신성한 지시가 없으며 따라서 절차에 대한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스스로 가지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사건에서 영감을 얻은 기록은 다음을 보여줍니다.

1. 느부갓네살과 세 히브리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군주도 종교와 관련된 어떤 것에든 명령을 내릴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2. 미디어-페르시아의 법과 정부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도 종교에 관한 어떤 법도 제정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신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3.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 직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습니다.

의지를 집행하거나 의도를 촉진하는 시민권의 여부;

4. 이스라엘 교회가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에 대한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어떤 교회도, 공의회도, 위원회도, 다른 기관이나 직분자들의 연합도, 또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이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 또는 가르치고 싶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자신의 동료 회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할 권리가 결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제시된 네 가지 사례는 완벽하게 평행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종교에서 지배를 시도하는 세력은 하늘의 하나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반대되고 폭로되었으며, 그리하여 "절대적으로 그른 것"으로 신적으로 드러났고, 각 경우에 종교에서 개인의 권리는 영원히 옳다는 것이 신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네 가지 경우 각각에는 뚜렷한 원칙이 관련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경우에도 앞의 세 가지 경우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배를 요구한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를 금지하는 미디어-페르시아의 법이 잘못된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주 예수에 대한 뜻을 실행하기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어떤 교회 회원이라도 그들이 주 예수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는 진리를 가르치거나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경우에는 어떤 군주도 그 군주처럼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디어와 페르시아의 법의 경우 원칙은 어떤 법도 그 법과 합법적으로 유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시민 권력을 사용하는 교회 조직의 경우, 원칙은 어떤 교회도, 어떤 교회 조직이나 조직도 어떤 형태로든 시민 권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사도들을 대적한 경우처럼, 어떤 교회도, 어떤 교회 조직이나 조직이나 종교 단체도 그 교회의 공식 조직과 유사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니요; 그 당시 교회 행정에 대한 가말리엘의 조언은 옳았고, 영원히 옳으며, 모든 위원회, 공의회, 교회 행정에 영원히 "그들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만일 이 전파하는 일이나 이 사역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느니라

당신은 그것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당신이 그것을 파괴하고 싶어도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측면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는 귀하의 관할권에만 속합니다. 그것을 거기에 두고 그분을 신뢰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그분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 역시 자명한 진실이라고 할 만큼 자명하다. 음

각 개인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무한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인도받아야 할 진리의 무한성과 영원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항상 사실입니다. 사물의 본질상 무한하고 영원하신 성령 외에 다른 어떤 분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은 이 무한하고 영원한 진리 안에서 무한하고 영원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무한하고 영원히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제한하는 것일 뿐이며,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마음의 진보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전 가능성에 제동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스라엘 교회가 옹호한 원칙을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다면 오늘날 인류와 세상의 상태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말의 궁극적인 죄악은 그것이 영원한 성령 대신에 단순한 인간 법정을 인정하고 제재하며 설립하고, 죄 많은 인간의 몸에 무한하고 영원한 성령의 특권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리의 나타남이 분명한 만큼, 사도 시대가 끝난 후부터 이 시간까지 세계에 단 하나의 교회 "조직"이나 교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개탄할 정도로 사실입니다. 유대교회가 사도들의 경우와 동일한 원칙을 따르지 않고,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동일한 일을 행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에는 최근에 일어난 종파를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그 종파의 각 개인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을 자유의 권리를 인정하는 종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관리들이 모르거나 직면하기를 원하지 않는 진리를 설교합니다. 그리고 어떤 회원이 이와 같이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아는 진리를 가르치고 설교할 때, 즉시 교단의 직분은 깨어나고 그 조직은 영 자체와 같은 방식으로 가동됩니다. , 유대 교회의 직분과 조직을 위해 그는 그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가 사도들처럼 그러한 행동과 명령을 무시하고 실패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진리와 그가 아는 대로 예수를 가르치고 전파하면 그도 사도들과 같이 박해를 받고 쫓겨나느니라.(2)

(2) 그들은 그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래, 누구든지 원하는 때가 올 것이다
당신을 죽이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6:2.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 365개 이상의 교파가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죄악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개인의 권리와 신앙과 신앙의 자유라는 근본적인 기독교 원칙을 인식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거나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신성한 진리를 향한 방향? 성령께서 모든 진리의 인도자이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권리와 자유를 인식할 그리스도인 그룹이 세상에 있을 때가 언젠가 올 것이며,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영에 의해 모든 진리로 인도될 권리와 자유를 인정할 것이며, 이 진리의 영에 의해 인도되는 모든 진리를 붙잡고,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인정할 것입니다. , 그는 이끌릴 수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도 확인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제 기독교 원칙을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가 기독교인들 사이에 퍼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심지어 세계 도 군주와 독재자가 개인의 완전하고 완전한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배웠습니다.

세상 조차도 법이 개인의 완전하고 완전한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

심지어 세상 도 교회가 자신의 의지를 승리로 만들기 위해 시민권력을 통제해서는 안 되며, 설득 분야에서 완전하고 완전한 권리를 인정해야 하며, 따라서 개인성과 자유의 자유롭고 완전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자체는 개인의 자유롭고 완전한 권리와 믿음과 성령과 진리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배우지 말아야 합니까? 이제 기독교 교회는 교회 의 기원과 존재 의 근본 원리를 완전한 순수성 속에서 인식하는 법을 배우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교파도 자신의 기원과 존재에 관한 이 기본 원리를 배우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면, 모든 곳의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그리스도인 으로서 자신 의 기원과 존재 에 대한 이 기본 원리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때가 두 배로 높아진 것은 아닙니다 . 그리고 기독교 교회의 기원과 존재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개성과 자유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대에 걸쳐 그토록 놀랍고 끊임없이 명확하게 하고 유지하신 신앙과 진리 안에서의 개인성과 자유에 대한 신성한 원칙과 권리가 영원히 반대되고 억압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제대로 대표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진리, 그 훌륭한 진리는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 자체의 존재 자체를 위한 근본적이고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 신성한 진리는 여전히 널리 퍼져 세상과 세상에서 그 신성한 위치를 영원히 유지할 것입니다. 교회. 기독교와 교회의 이 신성하고 근본적인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들이 세상의 참된 기독교 교회였던 것처럼 지금과 영원히 그들 자신이 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그 “영광의 교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그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사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실 때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 사 점이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우시리라” ”.

,

사도들에 대한 이스라엘 교회의 이 전체 역사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엄숙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는 진리가 초월적인 의미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존하신 참된 교회였지만, 그 후에는 참된 교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그 교회가 멸시하고, 금지하고, 박해하고, 추방했던 것이 그 자체로 참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34-38.

제5장

종교적 자유 개인 간

성경에서는 독재적인 군주제가 존재할 때 종교에 있어서 개인의 신적 권리가 최고로 나타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령, 법령 또는 법률이 있는 경우;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교회 앞에서; 그리고 교회 자체 앞에서, 심지어는 그 회원 안에서 말입니다.

가능한 관계는 단 하나뿐입니다. 즉 개인 대 개인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어떤 독재 정권도, 합법적인 정부도, 공권력을 통제하는 교회도, 그리고 자신의 회원 범위 내에 있는 어떤 교회도 어떤 권위나 관할권, 권리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고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 개인의 최고적이고 절대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 어떤 개인도 종교 문제에 있어서 다른 개인에 대해 어떤 권위, 관할권 또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것이 그 자체로는 분명하지만, 이 주제와 이 주제의 다른 각 단계에 관해 적어도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에 있어서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종교의 핵심 요소인 신앙의 행사와 관련하여 어떤 권위나 관할권이나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사물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믿음과 믿음의 행사, 즉 종교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유일한 주권과 관할권은 그분께만 속합니다.

성경에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22.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시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빛을 질 수 없습니다. 신앙이나 신앙의 행사에 관한 모든 책임, 즉 종교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완전한 개성을 보장하는 근거이자 보장이자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각 신자들에게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의견을 토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의심스러운 생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의심을 멈추지도 않습니다. 그를 “판단” 하지도 말고 그를 “멸시” 하지도 마십시오. 로마서 14:1-3.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른 사람을 “논쟁” 하거나 “결정” 하거나 “판단” 하거나 “멸시”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다”는 사실을 영원히 관찰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접” 하였으므로 이 사람도 “환영”합니다.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환영” 하셨으므로, 그의 믿음 때문에 그를 “환영”하십니다.

그는 “믿음이 연약”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환영”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믿음이 연약” 하더라도 “그를 영접하라” 는 인도를 받습니다 .

그는 “믿음이 약”하지만, 그가 약한 것은 “믿음” 입니다 .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그 믿음으로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약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다. 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이 믿음의 복된 역사를 완수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느니라. 개인은 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그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 믿음은 그것을 소유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만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당신의 책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 하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 “믿음 안에서” 각 사람의 책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것 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영접하되 의견을 논하거나 멸시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받으셨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책임이 있으니 “네가 누구냐?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4절. 사람의 종이 라도 공의로 할 수 없는 일이나 하물며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진 사람이라면 얼마나 더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받지도 않은 사람, 여러분과 내가 지지하지도 않고 지지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을 사람을 “믿음으로 ” 붙들고 승리하게 하실 때 , 그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비록 그는 “약하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붙들실 수 있고 그를 스스로 “서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 이 주는 이시며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영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당신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종교적 성격을 지닌 사물에서 인간의 완전한 개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항목은 이미 언급한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은 하루와 하루를 구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일 똑같이 판단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잘 정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5절.

이 구절은 모든 날이 동일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낮과 낮의 차이"를 만듭니다. 성경은 모든 날이 같지 않다는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의 날로 정하신 날이 있고,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다른 날들과 구별하신 날이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사실이지만, 이 날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에 관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명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십니다 .

이 성명서에서 그는 종교에서 개인의 완전한 우월성과 절대적인 권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 항목은 요즘 증거로 드러나는 문제, 즉 안식일 의무 준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준수하거나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명확한 견해를 두십시오. 낮과 낮을 구별하는 사람도 여호와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6절.

여호와를 위하여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한 날은 전혀 진실로 생각하지 아니하며 지키지 아니한 날이나라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으로 고려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양심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과 개인 사이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법률, 법령, 경찰, 법정, 박해에 의해 부과된 모든 안식일의 준수는 우선 하나님의 영역과 개인의 신앙과 양심의 영역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그것은 그날을 준수하는 것도 아니고 결코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에 설득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하고 거룩하게 한 날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관찰하라고 호소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날을 기념하거나 숙고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뚜렷한 견해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에 완강히 믿지 아니하여 여호와와 날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아무에게도나 사람의 몸이나 율법에 있지 아니하니라 정부 또는 지구에 대한 권력.

이 항목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무서운 사실을 고려하여 종교의 완전한 개성을 인정하라는 호소입니다. 이 호소는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너는 왜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리고 당신은 왜 당신의 것을 경멸합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고 모든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였느니라.” 10, 11절.

우리 각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거기서 그에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와 관련된 일에서 우리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의해 심판을 받도록 부름을 받는 것이 어떻게 공의롭게 가능합니까?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대답해야 할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구원도 하시고 몹시 괴롭히다; 그런데 너는 누구이기에 네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11.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앞에 나타나 "몸으로 행한 행위" 에 대해 답변해야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재판정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종교의 완전한 개성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보증이자 가장 강력한 호소 중 하나입니다. 모든 영혼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항상.

마지막으로, 영감받은 결론에는 종교의 완전한 개성에 대한 전체 사상과 진리가 훌륭하게 요약되고 강력하게 강조되며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절

12.

제6장

종교적 자유! 신과 시저!

이스라엘 교회의 경우,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기로 결정한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 대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교회도 그 교회 자체의 개별 회원의 신앙이나 가르침에 대해, 이에 대해, 또는 그에 관해 어떠한 권위, 관할권, 권리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완전히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 고린도후서 1:24.

어떤 교회에도 권위, 관할권, 권리가 전혀 없음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종교 자유의 위대한 진리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또 다른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주목할 만한 구절은 정탐을 하던 바리새인들과 헤로당 당원들이 예수께 와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예수께서는 헌금을 손에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각상과 비문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은 대답했다: 카이사르로부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여기에는 두 인격, 즉 하나님과 가이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두 가지 권력, 즉 종교권력과 시민권력; 두 권위 - 신과 인간; 두 가지 관할권, 즉 하늘과 땅의 관할권; 그리고 오직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람이 무엇이든 순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관할권과 권세와 능력과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가이사에게 속한 관할권과 권세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분야입니다. 카이사르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가 아니라 가이사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이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가이사에게 제출하지 말고 가이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출하지 말라.

원래는 단 하나의 분야, 단 하나의 관할권, 단 하나의 권위, 단 하나의 권력, 단 하나의 권리, 즉 오직 하나의 권리, 즉 오직 하나의 권리만이 존재했고 결국에는 존재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24-28.

죄가 결코 세상에 침투하지 않았다면, 오직 하나님의 영역 외에는 다른 영역도, 다른 관할권도, 권위도, 능력도, 권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에도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분야도, 관할권도, 권위도, 권력도, 권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1:7-10; 골로새서 1:20-23.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관할권, 권위, 능력 및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목적과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이며, 그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을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만드는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심지어 시민적 태도도 갖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도덕적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시민으로 인도할 관할권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이고, 시민 권력이고, 카이사르입니다. 이것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사물의 본질에는 단 두 가지 분야와 두 가지 관할권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것과 시민적인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영원한 것과 현세적인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하나는 가이사로부터. 이 두 가지 분야와 관할권만 있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하나님의 발과 관할권입니다. 다른 하나는 카이사르의 것이다.

신성한 말씀에 따르면 이것들은 둘이고 이 둘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둘이므로, 교회에는 왕국도 주권도 없고, 들판도 관할권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는 자리가 없다는 것이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따릅니다. . .

그러므로 추정이나 찬탈 없이는 어떤 교회도 어떤 왕국이나 통치권, 어떤 분야나 관할권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교회는 카이사르의 것이 아닙니다. 추정과 강탈 없이는 교회가 가이사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카이사르의 분야와 관할권, 즉 국가, 시민권은 전적으로 이 세상에 속합니다. 교회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주제넘음과 찬탈 없이 가이사의 영역을 점유하거나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인 가이사의 일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관한 한, 가이사에 관한 한, 하물며 하나님에 관한 한 교회에 관한 것은 얼마나 더 사실입니까! 교회는 가이사가 아니며 가이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비밀”, “하나님의 때에 앞서서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와 같은 무자비한 용어로 영감을 주지 않았습니까? 왕국을 갖고 통치권을 유지하며, 현장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상상했습니까? 자신이 왕국이고 통치권을 갖고 있으며 영토를 점유하고 하나님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교회가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교회는 궁극적인 오만과 주제넘음, 찬탈이라는 진리를 완전히 분명히 밝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이 필요할까요? ?

그러나 “교회”라는 용어가 영감받은 말씀에 표현된 교회에 대한 신성한 개념, 즉 “충만 함” 만을 말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나라” 이것이 바로 “교회” 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나 “교회” 가 어떤 인간적 개념, 어떤 종파나 종교적 교파, 어떤 지상의 “조직”의 의미를 부여하고자 할 때,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실제로 교회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왕국에 왕으로 임재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여전히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신 곳에서는 그분이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분열된 왕국에서는 결코 왕이 아니시며 왕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의 왕국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으시며, 그렇게 하실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실제로 왕이 아니시더라도, 참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왕이요? 아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은 실제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것, 그리고 그곳의 모든 사람의 왕이요 주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실이 아니며 사실상 하나님의 왕국이 아닙니다. 영토는 그분이 차지해야 하고, 관할권은 그분이 행사해야 하며, 원칙도 그분의 것이어야 하고, 정부도 그분의 것이어야 하며, 형상과 비문도 그분의 것이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인간의 혼과 영은 인간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듯, 의도와 정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악하고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인류 속에서 이 왕국은 찬탈당하고 이 분야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찬탈자는 왕좌에 앉아 노예화하고, 타락시키고, 파괴하는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왕국은 의도와 권리에 따라 하느님께 속해 있지만 실제로는 하느님께 속해 있지 않고 다른 하느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고 노예가 된 영혼이 이 소외된 들판에서 오직 하나님을 영접하여 이 보좌에 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탈당하고 그곳에서 참된 관할권을 행사한다면, 그 영혼과 영과 생명은 진실과 사실, 의도와 정의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그것은 진실로 오직 하나님의 왕국이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한 모든 것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총만케 하시는 이의 총만함”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의 백성으로만 구성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왕국의 왕이시며 유일한 지도자이십니다. 이 분야의 관할권은 오직 그분의 것입니다. 정부의 원칙, 정부의 권위와 권력은 오직 그분의 것이며, 왕국의 모든 시민은 그분에게만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지역의 모든 주민은 그분의 관할권에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왕국인 이 교회의 모든 회원은 그분만이 갖고 계시는 원리에 의해 영감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오직 그분의 권위와 능력에 의해서만 다스려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에게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인 진리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들은 또한 가이사의 것 곧 조공과 세금과 영예를 대신하여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5-7.

따라서 다시 한 번, 하나님과 가이사 사이에는, 심지어 그들과 함께라도 어떤 사람이 복종할 수 있는 제3자, 당파, 권력, 분야 또는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 완전히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하나님과 가이사 외에 어떤 왕국이나 통치권, 권력이나 관할권에 무엇이든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만 있습니다. 교회의 조각상이나 비문도 없고, 어떤 것도 넣을 공간도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없이, 그리고 모든 것으로서의 하나님이 그분의 자리에 계시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무언가가 되려고 할 때, 그것은 없는 것보다 더 나쁠 뿐입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아무도 그런 종류의 교회에는 결코 빛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그녀에게 모든 것이라면;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왕국과 통치권과 관할권과 권위와 능력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녀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갇아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교회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교회 자체에는 어떤 사람이 제출해야 할 것이 없거나 제출할 것이 없다는 것은 엄격하고 문자 그대로 사실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실제로 하나님과 가이사로부터 무언가를 빚지거나 복종하는 두 사람, 두 왕국, 두 관할권, 두 권위, 두 권력이 있다는 것이 다시 강조됩니다. 이 두 개 이상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그 부르심과 그 위치에 충실하기 위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하고, 하나님 안에 완전히 참여하고 잃어버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알려지거나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독교 정신에 있어서 이것은 확실히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소명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하고, 그분 안에 완전히 참여하고 잃어버려져서 그들의 모든 것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도록 하는 것, 즉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개별적인 그리스도인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비움, 아니 자아의 소멸을 위해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의 교회가 그 부르심과 그 위치를 망각한 곳입니다. 그 자체로 무언가가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전부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왕국과 통치와 관할권, 권위와 능력, 말씀과 믿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왕국 자체를 열망했습니다. 해당 분야 및 관할권에 적용됩니다. 보장할 수 있는 권한; 그가 휘두를 수 있는 힘; 말할 수 있는 단어에; 그리고 지시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도요.

이 야망을 만족시키고 이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가이사에게 속한 왕국과 통치권, 분야와 관할권, 권위와 권력을 취하고 강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가이사도 아니고 자기 구성적이고 자기를 높이는 중개자일 뿐이므로, 그들의 혼란과 혼합은 죄악을 증가시키고 세상에 대한 저주를 심화시켰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시대와 구약에서 그녀에게 주시는 비난입니다. 영광과 아름다움, 영예와 위업, 권위와 능력, 감미로운 영향력과 신성한 매력은 모두 그녀의 것이었고, 그가 그녀와 함께 거하고 그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에스겔 16:11-19; 로마서 1:7-9; 데살로니가후서 2:2,3; 요한계시록 17:1-6.

하나님께서 그에게 “온 사람이 거주하는 세계에 걸쳐” 언급된 참되고 신적인 믿음을 주셨을 때, 그는 그러므로 그의 믿음이 온 세상의 믿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따라서 “믿음의 속성을 부여하고 지시할 권리를 스스로 취했습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그가 지시한 “믿음”이 진리이며 신성한 기원임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할 수 있는 완전한 순결한 말씀을 주셔서 그녀가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과 같게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녀가 말했기 때문에 말하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리의 완전함을 주셔서 그 자신이 이 진리를 말하는 것이 모든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에게 말할 권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들까지도 그 권세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정도의 그분의 권세를 그녀에게 주셨을 때, 그녀는 그 권세가 자기에게 속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과 국가가 그것에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강요하는 힘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모든 면에서 자신이 꼭 달라붙고 붙잡아야 할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찬탈”. 그러나 모든 사람과 교회나 교회가 될 모든 것이 다시는 그것을 집착할 것, 생각해야 할 찬탈,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교회가 어떻게 스스로를 비울 것인가만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자신의 인격과 그 안에 있는 성령을 나타내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세계로.

어떤 교회도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로 부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부르며 되는 때가 왔습니다. 교회 자체가 무엇보다도 셋째 나라나 관할권이나 권세는 없고 오직 둘, 즉 하나님과 가이사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람 들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지시를 촉구해야 할 때: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면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었던” 동일한 감정, 즉 “하나님과 동등함을 찬탈로 여기지 ” 말아야 할 때가 완전히 도래했습니다. 오직 자신을 완전히 비워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니 그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시느니라. 그분은 교회 안에서, 교회와 교회를 위한 유일한 왕이시며 주님이시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국가와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하나님 대신에 왕국을 차지해 왔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하늘에서 영광의 큰 음성들의 큰 말이 땅에 들리게 되리라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큰 권능이 있으시고 주께서 나타나셨도다 왕." 요한계시록 11:17.

제7장

종교적 자유
재현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종교의 개성에 대한 신적 권리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이 원칙은 독재정치, 우월주의 통치, 법의 경직성, 국가와 교회의 연합, 그리고 개인.

제발 이 모든 것이 단지 고대 역사에 대한 일련의 연구일 뿐이라고, 심지어 성경의 원리와 구절에 대한 연구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분야에서든 연구가 충분히 정당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단계 또는 다른 단계에서 오늘날과 항상 완전히 유효하고 활동적인 원리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일련의 예시가 다시 효력을 발휘하고 활성화될 때가 와야 하며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동시에, 각자가 자신의 장소와 시간에 있었던 것처럼 진실되고 동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독재 정권, 우월주의 정부, 법의 경직성, 교회와 국가의 연합, 교회 그 자체가 마치 한 마음으로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는 연합된 경향을 보일 날이 멀지 않았으며 올 것입니다. 종교의 통일성; 그리고 종교의 개성에 대한 모든 제안과 그에 대한 모든 종류의 권리를 분쇄합니다.

특히 이러한 연구가 출판된 것은 곧 일어날 일을 고려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것들은 영감의 성령에 의해 여기에 확립되었는데, 이는 항상 모든 사람을 교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세상 끝에 온 자들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본 바로는 악의 세력과 정의의 왕국 사이의 가장 강력한, 그리고 가장 넓은 규모의 갈등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 가까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감받은 기록에서 나오는 이러한 교훈은 지금 당장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원천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압력과 곧 모든 개인에게 가해질 모든 힘에 비추어 볼 때, 각 개인이 스스로 알고 가능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통해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확신 - 정확히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정사와 권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의 위치, 책임, 권리입니다.

이러한 성경 연구에서 우리는 이러한 세력이 종교에서 자신을 주장하거나 어떤 권위나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지만 종교의 개성에 대한 권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각 사례를 논의했습니다. 다른 측면 가장 중요하지 않더라도 똑같이 사실이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고 절대적으로 무시되지 않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종교 문제에 대한 권위나 관할권을 강요하는 것을 각 개인이 결코 허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된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권리에 대한 완전한 충성, 종교에 있어서 개인성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개인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율법과 하나님과 율법에 따라 자신에게 빛진 것입니다.

이 원칙을 각 개인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에게 불충성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옳은 대신 오류가 널리 퍼지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즉, 잘못된 것을 옳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영감받은 기록이 보여 주듯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에 예시된 바와 같이 법의 우월성에 의해 통치하는 독재 정권이 미디어-페르시아 권력에 예시되어 있고,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 유대 교회와 로마 세력이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니, 교회 자체가 이스라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적하여 예시된 것과 같으니라. 종교에 있어서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의에 절대적으로 신실하다는 것, 즉 자신과 동료 인간, 세 명의 히브리 청년, 다니엘, 주 예수, 그리고 주의 사도들에게 신실하다는 것은 동등하고 더욱 강조되는 사실입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은 절대 무시해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의 통치권은 찬탈당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권리는 완전히 버려지고 그 자리에 그릇된 것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때,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이 침묵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은 아무것도 아니냐? 충성심은 결코 알려지지 않을 권리인가? 오류만 승소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까? 인간은 결코 진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율법에도 진실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동료에게도 진실하지 않을 것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종교에 있어서 권위를 행사하려고 했을 때 자신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완전히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모든 독재정치가 종교에서 스스로 권위를 주장할 때 너무나 부적절하고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동시에, 세 히브리인이 종교에서 독재적인 권위 주장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무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이며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두 사람이 하느님께, 옳은 일에, 자신과 동료 인간에게 충실하려면 다른 모든 개인도 영원히 그 세 사람이 행동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미디어 페르시아 정부가 우월주의 원칙과 법의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자체 법률에 따라 종교 영역에 들어섰을 때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 종교의 영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든 정부가 똑같이 잘못되었음을 모든 정부와 국민에게 영원히 보여주기 위해 역사는 기록되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개인이 그 법을 절대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무시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도 똑같이 사실이며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모든 개인이 유사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의를 공경하고 자신과 동료 인간에게 진실하려면 그 개인이 행동한 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영원히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자신의 의지를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 권력과 동맹을 맺었을 때 엄청나게 불경건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모든 교회가 어떤 구실로든 자신의 의지를 유효하게 만들기 위해 시민 권력을 통제하려고 할 때마다 동일한 오류를 범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영원히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이 사악한 계약의 대상인 개인만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기 위해 복종하기보다는 그 계약 아래서 죽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도 똑같이 참되며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서 주 예수께서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진실하고, 진리에 진실하고, 자신에게 진실하고, 인종.인간.

이스라엘 교회가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믿어야 할 것과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결정하는 권위를 갖게 되었을 때,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완전히 잘못 행동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모든 교회와 사람들에게 교회 구성원이 믿어야 할 것과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맡을 때 모든 교회가 똑같이 올바른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똑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영원히 분명히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 그 지역의 교회 구성원 개개인 이 어떤 방식이나 정도에 있어서도 그러한 권위를 공개적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는 것도 똑같이 사실이며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께 진실하고, 그리스도에게 진실하고, 의에 진실하고, 자신에게 진실하고, 인류에게 진실하려면, 그들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영원히 가르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세 명의 히브리 젊은이는 종교에서 어떤 독재적인 권리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종교에 있어서 시민법적 정부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신의 뜻을 집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통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거부하셨을 때 옳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무엇을 결정하거나 지시할 교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옳았습니다.

믿고 가르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능력으로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옳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옳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신적으로 옳았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모든 권력과 사람들이 그러한 태도가 신적으로 옳다는 것을 영원히 알 수 있도록 역사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때때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유지하고 권리를 세상에 유지한 사람들은 그러한 개인들과 그들과 같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진실성과 진정한 남자다움을 지켜주신 분; 그렇다, 바로 이들, 그리고 그들과 비슷하게 세상 자체를 살아있게 한 축복받은 개인들이다.

하나님의 명예를 유지한 것은 독재 정권도, 법의 정부도, 교회와 국가의 연합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아니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법을 지키지 않았고 인간의 성실성을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모든 개성과 온전함을 훼손하고 제거하며, 권리를 말살하고, 인간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증언합니다.

아니요, 이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은 개인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개성에 대한 신성한 권리를 알고 유지해 온 사람들입니다. 이는 다니엘, 그리스도, 바울, 위클리프, 루터의 경우가 그러하니 세상과 교회 안에서 홀로 섰고 교회와 세상을 대적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의 영광을 지키며 하나님과 율법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살려 세상을 살게 하였느니라.

지금과 장래에 이 일이 교회들 가운데서 권면되고 세계, 교파, 국가, 국제, 종교 연맹 과 종교 연맹에 촉구될 때라. 이 모든 것이 독재 정권, 정부의 법적 우월성과 경직성, 시민 권력과 연합하고 이를 통제하는 교회, 그리고 스스로 주도하는 교회를 통해 확보하려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목표로 삼을 때; 이 모든 것이 종교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확보하고 행사하기 위해 즉각적이고 공동으로 작용할 때,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이전과는 달리 지금은 종교에서 개인의 신성한 권리, 즉 완전한 종교 자유를 알고, 선포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8장

종교적 자유와
개성, 최고의 선물

정부는 지적인 존재의 존재 자체로 존재합니다. “피조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창조주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느 지성 있는 피조물이 그러하듯이, 그것은 모든 존재를 창조주께 빚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여 그는 창조주께 영예와 최고의 헌신을 빚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사물의 본질상 피조물의 복종과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원칙입니다.

모든 지성 있는 피조물은 창조주께 모든 것을 빚지고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정부의 첫 번째 원칙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든 계명의 첫 번째로 선언하신 것이니라. 이것은 처음으로 주어진 계명이므로 모든 계명 중 첫째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은 모든 지적 생명체의 본성과 존재 자체에 존재하며, 단순한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자마자 사물의 본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모든 계명 중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피조물과 창조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첫 번째 관계에 내재된 의무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창조된 지능의 본질, 환경, 존재에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이는 가장 높고 가장 절대적인 의미에서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되는 계명입니다. 그것은 최초의 지성 있는 피조물의 본성과 관계를 통합하며, 우주에서 절대적으로 홀로 나타날 때 최초의 지성 있는 피조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수백만 명에 걸쳐 각 사람의 경우에도 완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확장이나 원본보다 더 많은 피조물 수의 증가는 어떤 의미에서도 이 첫 번째 계명의 범위나 의미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지성 있는 피조물의 첫 번째 의무로서 절대적으로 홀로 계시며 영원히 완전하신 분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진리는 개성을 영원한 원리로 구별해 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지적 생물이 존재하도록 부여되자마자 추가적인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제 창조주에 대한 각각의 일차적이고 원래의 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창조주에게 동등하게 존재의 빛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에 대한 추가적이고 이차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이 이차적 관계는 절대 평등의 관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모든 관계 중에서 창조주에 대한 복종과 헌신 속에서 이들 각자는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사물의 본질, 두 지적 존재의 존재에는 본질적으로 두 번째 통치 원칙, 즉 모든 주체가 동등하다는 상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모든 계명 중 둘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 가운데 둘째입니다. 이는 모든 계명 중 첫 번째가 첫 번째 인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자마자 존재하고 사물과 지능의 본질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또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두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는 순간 완전하고 절대적이며, 다른 지적 생명체로 가득 찬 우주의 존재로 인해 결코 확장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개성 안에서 무엇보다도 창조주께 전적으로 복종하고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것을 빚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종과 헌신에서 무엇보다도 각 사람은 다른 모든 지성 있는 피조물을 자신과 동등하게 존중합니다. 창조주의 계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고 그 계획의 성취에 대해 개인적으로 창조주에게만 책임을 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창조주와 동료 인간과 자기 자신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동료 인간을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영원한 진리는 첫 번째 진리와 마찬가지로 개별적으로 구별됩니다.

영원한 원리로서.

이것이 원래 정부입니다. 그것은 또한 최종 정부이기도 합니다. 이는 첫째로 완전하고 절대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적인 창조물의 본성과 관계를 영원히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독창적이고 궁극적으로 단순한 자치인 이 정부는 합리성과 신 안에서의 자치입니다. 왜냐하면 지성 있는 피조물이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주께 빚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성의 가장 명확하고 단순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종과 명예는 피조물로서 그녀의 합당한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료 인간은 창조주께 모든 것을 동등하게 빚지고 있으므로, 자신이 존경받고 존경받고 싶은 것처럼 동료 인간도 이 모든 면에서 존경받고 존경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성의 단순한 명령입니다.

또한 이것들은 모두 창조되었고, 존재 시 모든 것을 창조주께 빚지고 있으므로, 능력과 기능을 발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것과 함께 존재하는 것은 항상 의지에 따라 엄격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합리성의 단순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디자인. 창조주께서는 어떤 피조물의 존재나 능력, 능력이 그분의 뜻에 반하거나 그분의 계획을 벗어나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결코 결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이성의 단순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래적이고 궁극적인 정부인 자치(自治)는 하나님 의 지시에 따른 자치이며,

신, 그리고 신 안에서. 이것이 진정으로 유일한 진정한 자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능을 완전하고 무료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다른 지능들과 동등하게 만들어 도덕적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는 도덕성에 필수적입니다. 선택할 수 없는 지능을 창조했다는 것은 그 능력이 자유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인간을 다른 지능들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만드셨고, 그분이 창조하신 선택의 자유를 항상 존중하셨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행사하면서 지성이 자신의 존재와 그에 따른 능력 및 힘을 엄격하게 창조주의 의지와 계획에 따라, 즉 실제로 창조주와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결정할 때 그리고 창조주 안에서 이것은 가장 참된 의미에서 엄격하고 진정한 자치입니다.

그리고 각 지능의 숭배, 숭배, 동맹이 전적으로 자신의 자유 선택에 복종되어야 할 때, 이는 최고이시며 참된 통치자이신 하나님 편에서 피통치자의 동의를 받는 정부의 원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자와 피통치자, 창조주와 피조물 모두와 관련된 신의 정부는 완전한 자유의 정부에 의해 동등하게 완화된다는 것이 입증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개성으로 인한 완전한 자유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자유를 잃었고, 따라서 개성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선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람을 다시 데려오고, 사람을 잃어버린 곳으로 다시 데려가시려고 하늘에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개성은 창조주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가을에는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을 통해 인간에게 개성이라는 선물이 회복되었습니다.

가인으로부터 티베리우스 가이사에 이르기까지 죄와 제국주의의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은 너무나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억압을 받아 개성의 모든 흔적을 빼앗겼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셨고, 인간 경험의 모든 단계를 통해 인간의 개성을 원래의 영원한 기초 위에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5:15. 그러므로 본래의 순수성을 지닌 기독교 없이는 참된 개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제주의의 이익을 위해 기독교라는 이름 자체가 왜곡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주의 교회의 폭정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다시 체계적으로 개성의 모든 흔적을 빼앗겼습니다.

종교 개혁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기독교와 개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형식과 신조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모든 형태와 종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개성을 파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행했습니다. 종파, 국가, 국제 및 세계 연맹과 종교 및 종교 연맹, 다시 한번 제국주의 교회 전제주의는 모든 세계 권력, 기만적인 표징과 거짓 기적을 동원하여 체제의 모든 흔적을 박탈할 것입니다. 계적으로 인간에게서 개인성

그러나 개인성을 최고의 선물로 받은 기독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2,3. 그리고 개인성을 통해 승리하는 기독교는 그 성격상 이전과 마찬가지로 축복받은 개인 안에서, 그리고 축복받은 개인을 통해서만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개인, 종교에서 개인의 신성한 권리, 완전한 종교의 자유, 개인성을 완전 성실하게 유지하는 개인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항상 명심 해야 합니다. " 이즘 ".

제9장

종교적 자유와 일요일 입법

일요일 입법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 기원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미국,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미국 전역에 두드러지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와 전국에서 일요일 법안이 의회에 보편적으로 요구되며, 주 의회에서는 일요일 법안이 지속적으로 권장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에서도 이러한 질문은 적절할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일요일 입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독재 정권, 모든 법적 정부, 모든 교회와 국가의 연합, 그리고 모든 교회는 종교에서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종파, 국가, 국제 및 세계 종교 연맹의 압력을 받아 모집되고 결합되어야 합니다. 연합을 향한 세계적인 움직임

종교에 있어서 세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요일과 법에 의해 부과된 한 가지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유래와 성격

일요일을 옹호하는 최초의 법안은 콘스탄티누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으며 주교들의 주도와 요구에 의해서만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조항 자체뿐 아니라 법률의 사실과 정황, 법률뿐 아니라 시대 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확실합니다.

이 주제에 대한 첫 번째 법률은 서기 314년경에 제정되었으며 여섯 번째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람회도 일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법안의 의도는 특히 종교적이었습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법원과 기타 공직에서 업무를 금지해야 하며, 그 날은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명령했습니다. 헌신의 목적.”

이것은 일요일 준수를 옹호하는 모든 법안에 관한 Sozomen의 진술을 Neander가 의역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는 법안의 유일한 의도가 종교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Prof.에서 영어로 언급된 것처럼 Sozomen 자신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Walford씨는 법안의 종교적 성격을 정말로 강화시켰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그[콘스탄티누스]는 또한 여호와의 날로 정한 날을 준수할 것을 명하였으니, 유대인들은 이 날을 주의 첫날이라 부르고 그리스인들은 이 날을 태양에 봉헌하니 안식일 전날과 같으니라. 그 당시에는 사법적인 문제나 다른 업무가 전혀 행해지지 않았지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조멘 저, 교회 역사(Ecclesiastical History), 제1권, 제8장.

이는 일요일을 특정 사업 및 기타 일반 직업을 중단하는 날로 지정하기 위해 세계에 부과된 최초의 법안의 의도가 전적으로 종교적이라는 점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일요일 입법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서기 321년에 공포된 콘스탄티누스 법에서 금요일이 삭제되고 일요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법의 범위는 법원이나 기타 관공서뿐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의도는 의심할 바 없이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입법과 관련된 주교 중 한 사람인 유세비우스가 그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콘스탄티누스]는 또한 어느 날을 종교적 예배를 위한 특별한 날로 간주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찬양 연설, 제9장.

서기 386년에 이 법안의 범위가 보편적으로 만들어지고 "일요일에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민사 거래가 엄격히 금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엄격한 종교적인 성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사람은 참으로 신성모독한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 네안더.

“신성모독”은 어느 정도 민사범죄는 아니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종교적 범죄 만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법안 자체로 볼 때 그 안에나 그 안에 어떤 형태로든 종교적인 의도 외에는 어떤 의도도 없었다는 것이 완전히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증거만 남기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촉진하고, 확보한 바로 그 개인들에 의해, 법안의 의도가 오로지 종교적이었고 특히 그랬다는 긍정적인 확신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세비우스 주교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를 확신시켜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콘스탄틴에게:

“이 강대한 지구의 대륙과 섬들에 거주하는 나라들에게 누가 명하여 매주 여호와의 날에 함께 모여 이 절기를 지키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함이 아니요 오직 몸의 위로와 원기 회복을 위함이나 영혼은 신성한 진리의 교훈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같은 책, 제17장.

이 모든 것은 법과 관련된 콘스탄틴 자신의 행동으로 확인됩니다. 자신의 율법의 해석자로서 자신이 무엇을 보여 주는지

그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그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주어진 신호에 따라 병사들에게 합창으로 반복하게 했던 다음 기도문을 추출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유일한 신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당신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당신의 호의로 우리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적보다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귀하의 과거 혜택에 감사드리며 미래의 축복에 대해 귀하를 신뢰합니다. 우리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그의 경건한 아들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승리를 거두도록 함께 당신께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생애, 제4권, 20장.

그러나 원래의 일요일 법령이 오로지 종교적인 것인지, 어떤 생각이나 의도도 없이, 그것이 전적으로 종교적인 성격 이외의 다른 것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합리적인 사람의 마음 속에 의심이 지속된다면, 심지어 그러한 지속적인 의심은 황제가 아니라 폰티팩스 막시무스 (pontifex maximus) 로서의 그의 직무와 권위 덕분에 그 날이 명시된 용도를 위해 따로 정해졌다는 명백한 사실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일을 지정하는 것이 폰티팩스 막시무스의 유일한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역사가 Duruy의 다음과 같은 탁월한 권위입니다.

“어느 날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지 결정하고 국가적 사용을 위한 기도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콘스탄틴은 폰티팩스 막시무스로서 자신에게 속한 권리 중 하나를 행사했으며,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 로마의 역사, 챕터 CII, 파트. 1, 항. 4.

이것은 이 작품의 기원과 전적으로 종교적 성격을 알아보기에 충분하다.
일요일 법령은 그 자체로 성립됩니다. 이제 다음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영감과 시작

이 최초의 일요일 법령은 지상에 “하느님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콘스탄틴과의 음모와 정치-교회적 합의를 통한 당시 대중 교회의 큰 야망과 계획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상 신권정치의 정확한 사상이자 목적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거짓 신권 이론”이 . 이는 쉽게 성직자 국가를 형성 하고 세속 권력을 스스로에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거짓되고 일탈적인 방식으로.” 이 신권 이론은 콘스탄티누스 시대에도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교들은 자발적으로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활용하려는 그들의 분쟁과 결단력에 대해.” - 네안데르.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원래의 신적 신권을 모방한 인간 신권정치의 전체 계획은 분명히 주교들에 의해 고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입법을 통해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역사에서 절대적으로 명백하고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모든 교회 문헌을 관통하는 분명한 사상의 노선입니다. 그리고 유세비우스 주교의 작품인 "콘스탄티누스의 생애"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막센티우스에게 억압받는 이집트의 이스라엘이었고, 콘스탄티누스는 이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새로운 모세였습니다.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에게 막센티우스가 패배하고 티그리스 강에서 익사한 것은 파라오가 바다에서 무너진 것과 같았고, 그는 "돌처럼 가라앉았다". 이 새 모세가 새 율법을 부여한 후, 새 이스라엘과 함께 새 모세는 사막에서 이교도들을 정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신권 통치가 완전히 확립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왕국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새 모세에 의해 성막이 세워졌고, 성경에 있는 신성한 원본을 모방한 제사장직이 확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성경에 있는 신적 원본을 모방하여 일요일은 법에 의해 이 새로운 거짓 신권정치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토요일은 참되고 독창적인 신권정치의 표징이었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러한 명백한 의도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그 일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이었던 유세비우스 주교 자신의 말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밝혔듯이 말입니다. 그의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요일에 하기로 한 일을 모두 일요일로 옮겼어요.”

이렇게 확립된 사물의 계획과 체계가 그들의 생각 속에 바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었다는 사실 또한 유세비우스 주교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하늘 주권의 모습을 부여 받은 그 (콘스탄티누스)는 위를 바라보고 하느님의 군주와 일치하는 힘을 느끼면서 신성한 원래의 모형에 따라 지상 정부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는 카이사르들을 임명함으로써 선지자들이 오래 전에 선언한 바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차지하라'고 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느니라. —연설, 제3장.

참되고 독창적인 신권정치의 표인 안식일을 대신하고 이를 모방하여 새롭고 거짓된 신권정치의 표로서 제국법에 의해 확립되고 시행된 일요일 준수는 모든 사람을 교회의 "적합한 신민"으로 만드는 수단이었습니다. 이 새롭고 거짓된 "하나님의 나라". 다음은 유세비우스 주교가 지금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사랑받는 우리 황제는 제국의 권위의 원천을 위에서부터 물려받는다.” “이 우주의 보존자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하늘과 땅과 해의 왕국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하시는 우리의 황제께서는 그가 이 땅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을 독생자이시며 구원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그의 왕국의 신실한 신민으로 삼으십니다.”—Id. 캡.

II.

이 증거는 원래 일요일 법령의 영감과 시작이 배타적이고 구체적으로 교회에 국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제 국가"를 세우기 위한 주교들의 거대하고 교활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탈된 방식”,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활용하려는 결의”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측면의 증거에 의하면 - 1. “기원과 성격”; 둘. 원래 일요일 법령의 "영감과 시작" - 상기 일요일 법령은 특히 종교적, 교회적이며 다른 모든 생각과 의도는 특별히 배제되어 있음이 입증되고 입증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건에 제시될 수 있는 모든 증거에 대한 만장일치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

지금 사건은 무엇입니까?

일요일 법령의 기원이 갖는 배타적이고 특수한 종교적, 교회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일요일 법령이 배타적이고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상실한 것인가?

우선, 이 캐릭터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습니까? 그 성격은 원주민이고 타고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언가가 확실히 살아남는 것처럼, 그것의 고유하고 타고난 성격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일요일 법령이 발견되는 곳에서는 그 교회적, 종교적 성격이 필연적으로 그것과 연결됩니다.

이는 사건의 원리와 성격에 있어서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역사적으로 추적하여 그 원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최초의 일요일 법령이 매우 우세한 요인이었던 "사제 국가"는 "세속적인 것을 종속시키며" 천년 이상 유럽 전체를 지배했으며, 이는 "권력을 이용하여" 독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 - 모든 국가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놀라운 시간 동안 일요일 법령은 원래의 고유하고 타고난 교회적 성격 외에는 어떤 주장도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1535년 헨리 8세는 로마 교황과 영국과 이혼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교회"가 된 것에 의해 헨리는 즉시 교황의 자리에 교황으로 섰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왕은 “지상에서 영국 교회의 유일한 최고 수장으로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1553년에 헨리는 공식적으로 "지상 영국 교회의 최고 수장"이라는 칭호를 맡았습니다.

지금의 영국 교회는 이전에 영국 의 가톨릭 교회였던 것에 불과합니다. ” “형태적인 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어요. 교회의 외부 헌법은 변함이 없었다.” -녹색.

그리고 이 동일한 변함없는 체계에서 교황의 일요일 법령은 계속되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토속적이고 타고난 종교적, 교회적 성격 이상을 암시하려는 가식은 없습니다.

영국에서 미국 식민지로 퍼졌습니다. 이 식민지는 영국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따라서 여기 (저자는 북미 사람입니다) 영국 정부의 확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 그리고 영국 체제에 따라, 로드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미국에 건설된 모든 식민지는 일반적으로 "기독교"의 형태로, 또는 기껏해야 "기독교"의 형태로 확립된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정 교회 의 형태로 .

그리고 미국의 각 종교 기관에서는 영국 시스템의 일요일 법령이 확대되었고 일부에서는 심지어 강화되었는데, 이는 원래 로마와 교황 제도의 일요일 법령의 연장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로마에서 늘 그랬던 것처럼, 미국 식민지의 일요일 법령은 원래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종교적, 교회적 성격 외에는 결코 생각이나 목적이나 주장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들 식민지는 이제 영국의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각자는 확립된 종교 체계와 일요일 법령 체계에서 이전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버지니아는 즉시 영국 교회와 그 종교를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기성종교에 관해서는 '종교자유 확립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에 관한 모든 것을 없애버렸다. 그러나 현 버지니아 주의 입법부에는 영국의 교회 및 국가 체제와 동일한 일요일 법령이 변경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이는 단지 로마의 법률과 옛 토착적이고 독창적인 종교 및 교회의 교황 제도의 변경되지 않은 법령일 뿐이었다. 성격.

버지니아의 역사는 실질적으로 로드아일랜드를 제외한 다른 13개 원래 주의 역사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13개 주의 일요일 법령은 원래의 13개 주의 일요일 법령 이후 항상 이를 소유한 최초의 13개 주의 일요일 법령의 확장이자 사실상 사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악한 진행 속에서 로드 아일랜드마저도 왜곡되고 부패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들의 이번 일요일 입법안은 식민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토착적이고 독창적인 종교적, 교회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글라테라와 로마.

따라서 콘스탄티누스의 원래 일요일 법령부터 미국의 최신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항상 동일하며,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입법
위헌

그런 다음 종교와 국가를 완전히 분리하고 “의회는 종교의 설립에 관한 어떠한 법률도 제정할 수 없으며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을 갖춘 미국 중앙 정부가 구성되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종교적 자유 확립을 위한 법률”이라는 선례를 지닌 국가 헌법의 이 원칙은 최초의 13개 주 이후 미국 연방의 모든 주 헌법 형성의 지침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헌법 조차도 비록 원래의 13개 주의 입법은 아니었지만 물질적으로는 헌법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침은 매우 충실하게 준수되었으며 미국 연방 전체에서 원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요약된 바와 같이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헌법에 따라 불법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될 수 있습니다.

"1. 종교 설립과 관련된 모든 법률입니다.

"둘. 세금 등을 통해 종교 교육을 강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삼. 종교 숭배에 의무적으로 참석합니다.

"4. 양심의 명령에 따른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제한합니다.

"5. 종교적 신념의 표현에 대한 제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미국 헌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금지 사항이며 양심과 종교적 예배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종교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국가나 공권력의 검열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입법자들은 교회와 국가를 통합하거나 종교적 설득이나 예배 방식을 선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종파가 국가에 의해 특권을 받고 법에 의해 이익을 얻는 곳에서는 완전한 종교 자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어떤 계급이나 종파에 차별을 두는 것은 무엇이든 그 구별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한 박해입니다. 종교에 근거한 경우 종교적 박해가 발생합니다. 차별의 정도는 처음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리나 특권의 불평등을 조성하는 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헌법상의 제한, *Cooley, Cap. XIII, para. 1-9.*

이제 이러한 사실, 조항 및 원칙으로 인해 일요일 법을 의심할 여지없이 배타적이고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면 미국 어디에서나 모든 헌법 하에서 일요일 법이 "종교적 박해"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위헌이며 그 자체로는 무효입니다.

이는 주 법원과 연방 법원 모두에서 위헌임을 인정했습니다. 오하이오 주 대법원은 헌법에 "종교가 일요일 입법의 유일한 근거라면 단 한 순간도 지속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방 법원은 "일요일 법안의 지속을 정당화하려는 일요일 변호사들의 다소 우울한 광경"에 주목했습니다. ... 그렇지 않다는 주장과 함께

종교의 자유라는 시민적 교리와 충돌한다" 고 말하면서 "종교에 도움이 되는 존재로 존재한다는 사실의 잠재력은 분명하다"고 선언한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원은 그것을 모든 단어에서 "박해"로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사법적 발명과 제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서는 일요일 법령이 법원에 의해 합헌으로 인정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대답은 이것이 사법적 발명과 제재를 통해서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이는 헌법 의 사법적 해석이나 해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법률의 성격에 대한 사법적 창안 및 승인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사법적 창안과 승인에 의해 일요일 법령에 완전히 새롭고 이상한 성격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이 새롭고 이상한 근거 위에서 그 법안은 합헌으로 유지됩니다. 이 새롭고 이상한 지형이 실제로 원래의 고유 지형이었다면 그러한 법안의 합헌성은 의문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에는 없어

어떤 의미든 이상하고 새로운 진정한 땅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발명이며 원칙적으로나 사실 모두에서 거짓입니다.

일요일 입법에 대한 새롭고 이상한 근거에 대한 이러한 사법적 고안과 승인은 이것이 신체적 이익, 건강 증진 및 사람들의 잃어버린 에너지 회복에 적용된다는 명제입니다. 이는 “노동 보호”를 목표로 하며, 따라서 “정치적 규제로서” 그리고 “순수한 시민 통치로서” 헌법에 부합합니다.

이제 일요일 율법의 ABC를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어떤 일요일 율법도 그러한 의도나 목적, 그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제정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모든 일요일 법령은 단순히 종교적, 교회적 성격 때문에 부과되었으며 모든 물리적, 시민적 요소는 특별히 배제되었습니다.

아이다호 주가 적절한 예입니다. 후자는 엄격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아이다호 주 출신이 아닌 교회 계급인 콘스탄티누스 시대의 주교들은 아이다호의 일요일 법령을 만들어 아이다호 입법부에 제출하여 가까스로 통과시켰습니다. 아이다호 법의 형태. 그리고 나서, “종교적 신앙과 예배의 행사와 향유는 영원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종교적 견해로 인해 시민적 또는 정치적 권리, 특권 또는 능력을 거부당할 수 없습니다. . . 법에 따라 어떠한 종교 종파나 예배 형식에도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는 안 됩니다.” 아이다호 대법원은 이 종교 및 교회 법령이 “헌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워싱턴 주가 또 다른 예입니다. 주 헌법은 “종교적 정서, 신앙 및 예배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개인에게 절대적인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종교로 인해 신체나 재산에 불편을 끼치거나 방해받을 수 있는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1889년에 이 헌법 조항이 위조되었을 때, 법에 있는 다른 모든 형태의 종교와 마찬가지로 일요일 법령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 그 제정자들의 만장일치의 의도였습니다. 이 조항이 제정될 때 이 책의 저자는 헌법대회위원회에 참석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일요일 입법안의 바로 이 주제가 위원회에서 특별히 고려되었기 때문에 그 입안자들의 의도가 그러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이 헌법 조항이 의도한 대로 일요일 법령을 제외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헌법에 따라 워싱턴 주 대법원은 일요일 법안이 “헌법”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요일 법령은 종교적, 교회적 목적 외에는 아무런 의도도 없이 성직자들에 의해 제정되었고, 이를 금지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위조된 헌법 조항을 통해 법원은 순전히 사법적 창안과 승인을 통해 이를 “헌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모든 결정은 명백히 첫 번째 원칙 중 하나와 사법 조치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규칙", 즉 "입법자의 의도는 법이다", "법률은 법이다"라는 원칙과 규칙을 명백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의도 외에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원칙은 정의에 따라 항상 다음의 구성을 이끌어야 합니다.

법령 과 헌법은 다음과 같이 유권적으로 선언된다.

“대중 정서의 변화를 허용해야 하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성문 헌법에 창시자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을 부여하는 것은 공식 선서와 공적 의무를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Coley, Constitutional Limitations, p. 67.

이 원칙은 법령 의 구성 과 헌법의 구성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그리고 법원이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해야 하는 감정의 변화 가 공적이든 일반이든, 사적, 개인적인 감정이든, 법원 자체의 편견이든 원칙은 동일하며 그러한 법원은 동등하게 "범죄"입니다. 공식 적인 선서와 공적 의무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새롭고 이상한 의미를 확립함으로써 인류 역사나 경험의 어느 곳에서도 창립자나 제정자의 의도에 의해 어떤 의미에서도 지지되지 않는 해석을 일요일 법령에 부여함으로써 법원이 행한 일입니다.

탭 가능한 속임수

그러나 일요일 법령에 대한 새롭고 이상한 근거를 이렇게 고안하고 승인하더라도 그 토착 적이고 원래의 종교적 근거를 배 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발명은 일요일을 종교 적인 입법 으로 도입하고 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헌법"으로 보이게 만드는 구실일 뿐입니다. 각 경우에 그것이 "순수한 시민 통치"로 만들어지자마자 "입법은 종교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 "과 "기독교의 독특한 측면"이라는 선언에 의해 즉시 종교적 지위가 부여됩니다. 반대하지만 오히려 강하게 찬성합 니다.” 따라서 종교 입법, 순수한 입법 조작을 금지하는 헌법 하에서는 전적으로 종교적이고 교회적인 “헌법” 입법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여전히 위험적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입법은 종교적 성격 때문에 미국 전역에서 위험이라는 변함없는 진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합헌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적 기반”을 창설 하더라도 그 본래의 토착적이고 타고난 종교적 , 교회적 성격으로 인해 여전히 위험 상태가 될 뿐입니다. 즉, 헌법이 필수 법률에 따라 모든 종교적 준수, 제한 또는 조항으로부터 절대적인 자유를 보장 하는 경우, 법률에 결합된 종교적 성격 은 그러한 이유로 해당 법률을 위험으로 만듭니다.

헌법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의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 의지가 입법에서 모든 종교적 인 것을 제외할 때, 종교적인 것에 대한 " 시민적 기반" 을 고안하는 단순한 속임수로는 이 최고 의지를 피할 수 없 습니다. 그러한 속임수를 사용하면 지금까지 들어본 모든 종교적인 내용이 합법화되고 모든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장은 달성할 수 없는 꿈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준수의 종교적 근거는 일요일 입법을 민법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일요일 법령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라는 것이 진실입니다. 사실 너무 강력해서 그 “시민적” 성격이나 필요성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단지 그것을 무효화할 뿐입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잘 명시했습니다.

“헌법은 '이 주에서는 차별이나 특혜 없이 종교 신앙과 예배의 자유로운 행사와 향유가 영원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선언합니다....

헌법 문제는 입법권에 대한 적나라한 문제이다. 입법부가 특정 일을 완수할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까?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 일요일에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서 투표한 사람들이 의도한 것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모든 사람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그 근거로 그것이 위헌이라고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Ex- part Newman.

원칙은 종교 자유의 침해로 인해 국가, 사회 및 각 개인에게 반드시 가해져야 하는 만큼, 원하는 시민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국가, 사회 또는 개인에게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권리를 침해하고, 종교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도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요일과 교회법이 어떤 항소에도 불구하고 위헌이며 미국 전역에서 “박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에서처럼 여기에서는 그것이 합헌적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적이며 교회적이기 때문에 일요일 법령은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며 결코 옳을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 히브리 청년들을 대적하여 종교적 근거와 성격을 지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모든 왕과 백성에게 그것이 잘못임을 영원히 가르치셨습니다.

메대-페르시아 정부는 다니엘에 대하여 종교적 기반과 성격을 지닌 불변의 율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부와 모든 정부와 국민에게 그것이 틀렸다고 영원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도가 아닌 다른 어떤 의도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교활한 속임수를 통해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목적"을 달성할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 이것은 그러한 조합과 절차가 극도로 사탄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광대한 우주에 그리고 영원을 위한 충분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높은 법과 더 강력한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권세입니다. 종교는 지능이 창조주에게 지고 있는 의무이며, 그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의 종교는 오직 그와 영혼의 주권자 사이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요일 입법이 지구상의 모든 주나 정부에서 합헌적일지라도 종교적으로 는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영토를 침범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땅이 불가능하다

법률이나 정부에 관한 한 전 세계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바칠 의무가 있는 권위는 단 두 곳뿐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가이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 예수께서는 이 진리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일요일 입법과 일요일 준수는 다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신도 아니고 카이사르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는 죄의 사람이 만든 거짓, 사람이 만든 신정의 표로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신 하여 세운 것이요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어 여호와와 안식일을 대신하는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인 참되고 신성한 신권정치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카이사르의 것이 아닙니다. 증거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을 성일로 선포하고 그 준수를 확립한 것은 국가의 수장인 카이사르가 아니라 종교의 수장인 폰티팩스 막시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도 가이사도 아닌 “교회”의 영감과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에게서도 가이사에게서도 나오지 않고 오직 이교의 “종교의 우두머리”를 통해 “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주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준수할 의무나 근거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무엇 이든.

귀하의 궁극적인 목적

그러므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일요일 법령의 내재적이고 독창적이며 고유한 성격은 항상 동일하게, 즉 배타적으로, 구체적으로 종교적, 교회적 성격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우리는 원래의 일요일 법령에서 궁극적인 목적이 “거짓되고 일탈적인 방식으로 세속적인 것을 자신에게 종속시키는 사제 국가의 형성”이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힘을 활용"하는 "결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의회와 입법부는 지속적으로 축소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꾸준히

당시 황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성직자들은 접근하고 심지어 위협하기까지 했으며, 항상 일요일 입법안과 더 많은 일요일 입법안을 선호했습니다. 그러한 법안이 이미 입법부에 아무리 많이 나와 있더라도 여전히 더 많은 법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공식화되지는 않더라도 관심 있는 성직자들 자신에 의해, 그리고 처음에 다른 성직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 재판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용어로 지시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증거는 일요일 법령의 성격이 항상 오로지, 배타적으로, 구체적으로 종교적, 교회적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는 미국에서는 위헌이고 비미국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나 반신적이고 반기독교적입니다.

종교의 개성은 모든 인간의 불가침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루시퍼의 타락 이후,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는 인간의 끈질긴 결심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잔인함과 억압으로 어둡게 보이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강요하려는 인간의 노력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마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 유력자들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원칙을 포기하기를 거부해 왔습니다. 모든 세대에는 하나님의 대의를 옹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최종 승리를 위한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종교의 개인성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이해되거나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현 세대는 이러한 귀중한 자유를 확립하는 데 필요한 투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지와 무관심은 사탄에게 과거의 억압적인 통치를 교활하게 다시 부과하는 데 필요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현 세대는 종교의 개인성이 불, 사자, 감옥 및 기타 모든 박해 앞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얻은 승리에 익숙해져야 하며, 그런 다음 그러한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자유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과거에 사용했던 압력이 다시 가해질 때가 곧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